

석사학위논문

무용 작품
「Happy Meal」에 관한 연구

2023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정 재 우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정석순

무용 작품
「Happy Meal」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oreographed Work 「Happy
Meal」

2022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

무용공연전공

정재우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정석순

무용 작품
「Happy Meal」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oreographed Work 「Happy
Meal」

위 논문을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정 재 우

정재우의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2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박 재 홍 (인)

심 사 위 원 김 남 용 (인)

심 사 위 원 정 석 순 (인)

국 문 초 록

무용 작품 「Happy Meal」 에 관한 연구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정 재 우

본 논문은 생활 환경과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혼자 지내는 삶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에게서 발견되는 외로움에 대한 작품이다. 현대 사회에 만연하게 방치된 있는 개인의 외로움에 대한 문제 제기와 사회적 관계의 형성은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결론에 대한 연구와 작품 분석이다.

유독 인간에게 발달하여 있는 외로움은 개인적인 영역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영역이다. 현대인의 생활 방식 및 가치관의 변화로 현대 사회는 외로움에 취약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자발적 고립보다 비자발적 고립에 의해 소외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의 외로움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타인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우리는 사회적 관계를 원동력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이러한 관계 속에서 소외되거나 그로 인해 고통받았던 경험 때문에 관계 자체를 회피하고 혼자만의 삶을 택하기도 한다. 혼자라는 것은 완벽한 자유로 보일 수 있지만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 존재이다. 만약 외로움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는다면 인간은 다시 누군가와 관계를 형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는 곧 인간의 생존 능력 약화로 이어진다.

현대 사회에 새롭게 형성된 문화 양상들, 1인 가구, 혼밥 문화,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은 외로움을 대체하는 수단이자 관계의 단절에 적응한 현대인의 산물이다. 단절된 사회와 외로움에 적응한 현대인의 모습을 이러한 일상적 행위들에서 채집한 움직임들로 한다.

특히 최근 성행하는 혼밥 문화와 여기서 관찰되는 특징적 모습을 동작화하는 것에 심혈을 기울였고 스마트폰과 스마트폰에 송출되는 화면을 영상으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현대인 단절된 생활과 문화에서 발견되는 외로움의 이미지를 극대화하였다.

총 3장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솔로, 듀엣, 트리오, 미디어 영상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된 창작 움직임들을 유니버스 형식으로 구성함으로써 작품을 표현 및 분석하였다.

본 연구 과정을 통해 발견한 것은, 인간에게 있어 사회적 관계의 형성은 필수적이라는 것과 현시대에 이러한 관계를 대체하고 있는 여러 환경 요소들이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주요어】 외로움, 관계, 사회, 혼밥, 1인 가구, 스마트폰, 유니버스 형식

목 차

I. 서 론	1
II. 이론적 배경	5
2.1 현대 사회에서의 외로움	5
2.1.1 외로움의 정의	5
2.1.2 실존적-현상학적 접근에서의 외로움	5
2.1.3 정신 역동적 접근에서의 외로움	6
2.1.4 사회 욕구 이론 관점에서의 외로움	7
2.1.5 상호 영향론적 접근에서의 외로움	8
2.2 외로움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 문제	9
2.2.1 외로움과 자살	0
2.2.2 외로움과 고독사	10
2.3 1인 가구의 증가	12
2.4 1인 소비문화	15
2.4.1 혼밥문화	15
2.5 옴니버스 형식	16
III. 작품 개요	18
3.1 작품형식 및 구조	18
3.2 작품의 구성요소 및 표현 매체	19
3.2.1 움직임 표현 방법	19
3.2.2 의상	20
3.2.3 조명과 음악	21

3.2.4 영상	23
IV. 작품 분석	24
4.1 1장: 관계의 갈등	25
4.1.1 장면 의도	25
4.1.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25
4.1.3 조명과 음악	26
4.2 2장: 혼밥의 이미지	26
4.2.1 장면 의도	26
4.2.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27
4.2.3 조명과 음악	27
4.3 3장: 고조된 관계의 갈등	28
4.3.1 장면 의도	28
4.3.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28
4.3.3 조명과 음악	29
4.4 4장: 반복되는 외로움	30
4.4.1 장면 의도	30
4.4.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30
4.4.3 조명과 음악	30
V. 결 론	32
참 고 문 헌	34
부 록	36
ABSTRACT	39

표 목 차

[표 3-1] 장면의 특징	18
[표 3-2] 움직임 표현 방법	20

그 립 목 차

[그림 3-1] 의상(우측면)	21
[그림 3-2] 의상(좌측면)	21
[그림 3-3] 의상(후면)	21
[그림 3-4] 의상(정면)	21
[그림 4-1] 각자의 자리에서의 움직임	25
[그림 4-2] 같은 의자에서 행해지는 움직임	25
[그림 4-3] 1-1장의 조명	26
[그림 4-4] 1-2장의 조명	26
[그림 4-5] 혼밥의 이미지를 표현한 움직임 컨셉	27
[그림 4-6] 2장의 조명	28
[그림 4-7] 오브제를 활용한 움직임	29
[그림 4-8] 슬로우 모션 질감의 움직임	29
[그림 4-9] 3-1장의 조명	29
[그림 4-10] 3-2장의 조명	29
[그림 4-11] 영상의 활용	30
[그림 4-12] 반복적으로 쓰러지는 움직임	30
[그림 4-13] 4장의 영상	31
[그림 4-14] 4장의 조명	31

I. 서 론

본 논문은 현대인의 외로움을 주제로 한 작품 「Happy Meal」에 대한 분석 및 연구이다.

표준국어대사전(2020)에 외로움은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으로 정의되며 한국어기초사전(2020)에는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은 쓸쓸한 느낌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정의를 볼 때 외로움은 관계의 결핍으로 나타나는 심리상태라고 볼 수 있다.¹⁾

인간은 타인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사회를 경험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더라도 항상 외로움에 노출되어있다. 모든 인간은 삶이 시작하고 끝나는 순간까지 궁극적으로는 혼자이기에 외로움이라는 정서를 불가피하게 직면하게 된다. 이는 매우 혼한 감정이지만 외로움의 본질은 사람마다 다르며 그 원인과 결과 또한 다양하다.

주관적 경험인 외로움은 인간관계에 대한 결핍이 없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 외로움은 개인적 차이가 있고 관계에서 느끼는 만족감 역시 다를 수 있다. 즉, 외로움은 개인차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지각되는 것이다. 실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혼자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인간관계를 형성하지만, 혼자인 시간을 온전하게 보내지 못하고 다시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누군가에게 혼자라는 상태가 외로움이 아닌 휴식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부정적 의미의 외로움으로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정도가 다를 수 있으나 현대인들은 서로 다른 수준의 외로움을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살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48.1%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로움은 나에게 자살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에 응답하였는데 이를 통해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죽음을 선택하는 결정적 이유로 작용할 만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 자살예방백서(2019)에서는 자살을 생각하게 된 주된 이유로 외로움을 꼽았는데 이는

1) 조재숙(2021) 『외로움에 관한 최근 연구 동향 분석』,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3p.

12.4%에 달하는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즉, 외로움은 자살사고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한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심리적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외로움으로 인해 한 개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 문제를 경험할 수 있으며 외로움이 지속되는 경우 심리적 안녕이 위협되고 자살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외로움은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일으키고, 스트레스, 자해와 같은 부적응적 행동을 유발하여 생활에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폭식 행동, 섭식장애, 편집 성향과 같은 정신장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외로움은 정서·행동·성격·적응 등 삶의 전반에 걸쳐 문제를 야기시키는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²⁾

2020년 초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외로움과 관련 인식 조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이 59.5%였다. 특히, 청년세대인 20대 67.2%, 30대 64%가 일상에서 외로움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었다.³⁾ 전 세계적으로 현대인의 외로움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인식되는 추세이다. 영국에서는 2018년 외로움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여 보건복지부 산하에 외로움 담당 장관을 신설하고 국가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히키코모리 지역 지원센터 75개를 운영하며 개인이 만성적 외로움과 우울을 극복할 수 있는 단계적 지원을 제공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외로움을 사회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단순 일자리 문제로 연결하는 경향이 강하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을 보듬어줄 대책이 필요하지만 사회 구조와 외로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통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실태에 문제의식을 느껴 외로움과 인과관계가 있는 사회현상을 소재로 작품을 제작하고자 하였으며, 여러 가지 현상 중 1인 가구의 확산과 그로 인해 형성된 1인 소비문화를 주 소재로 선택하여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연구를 진행하였다.

현대 사회의 도시화, 성평등 인식 확대, 가치관의 변화, 인구 고령화 현상과 저출산 등으로 인해 1인 가구는 현대 사회의 전형적인 가구 유형이 되었

2) 조제숙(2021) 『외로움에 관한 최근 연구 동향 분석』,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3p.

3) 한창수(2021) 『COVID-19 시대의 율분과 외로움 관리를 위한 연결성의 중요성』,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396p.

다. 이미 세계적으로 1인 가구의 비중은 주목할 만큼 높아져 100가구 가운데 12가구(11.8%)가 1인 가구로 추정된다. 이 비율은 북유럽 국가에서 특히 높다. 노르웨이는 전체 가구의 38.5%, 독일 37.5%, 프랑스와 벨기에는 33%가 1인 가구의 형태를 이루고 있고, 유럽 도시들의 경우 그 비율은 약 40%에 달한다. 아시아 지역은 그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일본의 예를 보면 장기화 된 경기 불황에 따른 비자발적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대도시의 1인 가구 비율이 45%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중국에서도 최근 1인 가구의 증가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2008년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싱글 경제의 형성’이 핵심 주제어로 다루어진 사실에서도 확인된다.⁴⁾

1인 가구는 1인 소비문화를 형성했고 이러한 변화의 흐름 중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이 바로 혼밥문화 이다. 혼밥의 보편화와 상품화는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는 식사라는 행위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환경 전반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혼자인 것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시대로 변했다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적인 삶을 선택하고자 하거나, 혹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비자발적 분리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작품 「Happy Meal」에서는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 일상이 된 현대 사회의 모습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외로움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였다. 사회적 구조와 환경, 문화에서 발견되는 현대인의 외로움에 대한 이미지로부터 영감을 받아 작품 제작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그중 주 소재로 삼은 것이 바로 혼밥문화이다.

혼밥 행위에서 발견되는 외로움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식사 형태의 이미지를 사용하였고 ‘혼밥’에서부터 2인, 3인 식사의 이미지를 솔로, 듀엣, 트리오의 안무 형태로 표현하였다. 테이블, 의자, 컵 등의 오브제를 활용하고 식탁에서 발생하는 움직임들을 모티브로 한 동작으로 각 장면을 구성하여 식생활에서 발견되는 외로움의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대 생활품인 스마트폰을 오브제 및 영상매체로 활용하여 관계의 단절에 대

4) 이명진, 최유정, 이상수(2014) 『1인 가구의 현황과 사회적 함의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민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229-253p.

한 표현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완성된 각 장면은 움니버스 형식으로 구성하였고 이러한 구성 방식을 통해 단절과 고립에 대한 메시지를 작품 전반에서 전달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2.1 현대 사회의 외로움

2.1.1 외로움의 정의

인간은 기본적인 소속감, 유대감을 갈망하는 사회적 동물로 타인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소통이 단절되어 격리되었다고 느낄 때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외로움(Loneliness)은 사회적, 개인적 관계의 결여에 대한 슬픔, 공허함, 인지·정서적 반응이다.⁵⁾

주관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인지적(부정적 태도), 정서적(부정적 감정), 행동적(수동적, 비효과적 사회적행동) 측면을 포괄하는 다 측면적 개념으로, 조기사망, 만성질환의 중요한 원인에 해당한다.⁶⁾

2.1.2 실존적-현상학적 접근에서의 외로움

외로움에 대한 실존주의적 접근은 주로 외로움의 주관적 경험에 초점을 맞춘 현상학적 전망에 기초한다. 인간의 외로움은 영아기부터 시작되며 개체화 과정의 단계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모든 개인은 외로움을 경험하지만 개인마다 경험하는 생활이 다르고 개인의 특성도 다를 수 있어 그 경험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개체화의 과정을 겪으며 인간은 타인과 구별되는 개별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이때, 고통스러운 외로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 이후에는 비로소 개인의 자율성이 증가하고 자아 통합의 수준이 더 높게 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인간의 실존을 피할 수 없어 다른 사람과 함께 하더라도 고립을 느

5) 이주연(2021), 『남녀 중년 성인의 권태 성향 및 외로움과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관계에서 소외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 효과』,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p.

6) 이려정, 정병웅(2020), 『지각된 외로움과 일상적 SNS 활동, 사회적 고립감 간 관계 연구』,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관광연구논총, 6p.

낄 수밖에 없다. 즉, 개인은 타자와 분리된 개체로 근본적으로 고독한 존재이다. 더불어, 대인 관계적 소외를 제시하면서 타인과의 소원한 관계를 통해 외로움을 겪는다고 보았고 궁극적으로 개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타인과 연결될 수 없는 간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로움을 겪으며 생활상의 부정성을 겪는 대다수는 이러한 실존을 수용하지 못하고 고립감에 빠지게 된다. 더불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더욱 깊은 외로움으로 빠져들곤 한다. 하지만, 고립된 상황과 감정을 인식하고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은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보았다. 실존주의에서는 외로움을 부정적인 감정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인식과 수용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감정으로 설명한다. 피할 수 없는 관계 내의 고립과 존재의 의미 발견을 통해 개인은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발전해나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결국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실존의 경험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외로움을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외로움에 대한 내면세계를 있는 그대로 자각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의 자신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세상에 내던져진 삶을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대신 자신 나름대로 능동적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⁷⁾

2.1.3 정신 역동적 접근에서의 외로움

정신역동적 접근에서는 초기 아동기 부모와의 관계 경험을 통해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설명한다. Fromm-Reichmann(1959)에 따르면 외로움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분리, 친밀감 부족으로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지며 다른 사람보다 더 고립감을 느끼고 친밀감과 사랑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 즉,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게 되면 이후 여러 가지 형태의 정서적 우울, 불안, 외로움을 경험하게 된다(Bowlby, 1988). Sullivan(1953) 역시 어린 시절의 타인으로 받은 거절 경험이 외로움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친밀감의 추구는 인간의 기본 욕구 중 하나이므로,

7) 조재숙(2021) 『외로움에 관한 최근 연구 동향 분석』,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11p.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 친밀감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한다.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친밀감의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매우 불유쾌한 감정인 외로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아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외로움의 발전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한편, 심프로이트 학파인 Shutz(1996)는 포함·통제·애정 3가지의 대인관계 욕구가 있다고 밝히면서 해당 욕구의 분석을 통해 개인의 대인관계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인 간 욕구를 생리적 욕구라는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생리적 욕구는 유기체와 물체 사이의 만족스러운 관계의 형성 시 충족되지만, 지나치게 관계를 통제하려고 하면 만족감을 얻기 어렵다고 보았다. 더불어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개인은 신체적 질병을 앓게 되며 심할 경우 죽음에 이르게 된다. 즉, 대인 관계상의 갈등과 부적응, 불만족감은 유기체의 정서적인 어려움과 직결되는 것으로 보았다. 첫 번째로 대인 간 포함 욕구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만들어가는 욕구로, 욕구가 충족되는 경우 ‘친밀하다’, ‘속해있다’, ‘어울리다’, ‘구성원’과 같이 관계와 관련된 말로 표현한다. 반면에, 포함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 ‘제외됨’, ‘고립된다’, ‘외로운’, 등과 같은 말로 표현된다. 두 번째로 대인 간 통제 욕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타인을 통제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통제받음으로 심리적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욕구로 만족 시 상호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세 번째로 대인 간 애정욕구는 사랑과 애정에 관해 만족스러운 관계를 생성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1:1 관계에서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며 심리적 편안함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로 사랑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라고 볼 수 있다.⁸⁾

2.1.4 사회 욕구 이론 관점에서의 외로움

외로움을 연구한 학자 중 한 명인 사회심리학자 Weiss는 사회 욕구 이론을 기반으로 외로움을 논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접촉과 다정함을 추구하는 사회적 동물로서, 외로움은 ‘관계 결핍으로 인한 좌절 반응’이라고

8) 조제숙(2021) 『외로움에 관한 최근 연구 동향 분석』,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13p.

볼 수 있다.

이 관점을 따르는 학자들은 애착 이론에 근거해서 외로움의 발달적 기원을 설명한다. 아동이 발달 초기 부모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 외로움을 경험하는데, 이러한 외로움은 반복적으로 경험되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 또래나 연인 및 배우자로 애착 대상이 바뀔 수 있지만, 나이와 대상을 불문하고 애착 대상의 상실과 부재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바로 이 고통이 외로움의 정수가 된다.⁹⁾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적 삶의 추구로 인해 애착 대상의 부재가 일상이 되어버렸다. 만연해진 외로움에 적응한 현대인을 사회 욕구 이론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관계 결핍의 좌절에 적응한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2.1.5 상호 영향론적 접근에서의 외로움

상호 영향론적 접근에서는 외로움을 시간, 문화, 맥락, 등의 영향을 받는 현상으로 간주한다. 즉, 사회 구성주의에 바탕을 둔 이 접근에 따르면 사람들은 개인적인 요인과 문화·상황적인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외로움을 경험한다.

원인과 맥락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일하게 경험하는 외로움의 공통 속성을 강조한 일차원적 접근과 달리, 상호 영향론적 접근에서는 맥락이나 발생 원인에 따라 사람들이 다양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배우자와 사별했다면, 애착 대상의 상실로 인해 불안이나 염려 등 정서적 외로움을 경험하는 동시에, 배우자와 함께 형성했던 사회적 연결망에서의 역할과 의미가 축소됨으로써, 지루함이나 배제된 느낌 등 사회적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¹⁰⁾

상호 영향론적 접근에서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외로움보다 개인들의 사회적 유대의 단절로 인해 발생하는 외로움에 초점을 두어 해석한다.

9) 서영석(2020), 『한국인의 외로움: 개념적 정의와 측정에 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일반, 211p.

10) 서영석(2020), 『한국인의 외로움: 개념적 정의와 측정에 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일반, 212p.

2.2 외로움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 문제

사회연결망 내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호혜성에 기초한 사회적 지지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사회화해나가는 과정은 사회적 존재인 인간 삶의 질 증진과 생존에 기여한다. 건강 또는 조기 사망률 관련 기존 연구들은 흡연, 비만 등 건강행동의 위험요인에 주목하였으나, 최근에는 객관적 및 주관적 사회적 고립이 부적절한 건강행동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사회적 고립이 건강 악화 또는 조기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로 인해 사회적 고립과 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적 연결망 내에서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 단절 또는 고립 현상과 같은 객관적 차원의 사회적 고립과 사회적 연결망의 축소로 인한 외로움과 사회적 지지 결여 등 사회적 관계의 질적인 수준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주관적 차원의 사회적 고립은 낮은 수준의 삶의 질, 건강 악화, 더 나아가 사망률과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¹¹⁾

이러한 실정으로 국내외에서 2000년대부터 외로움과 관련한 논문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가족구조의 변화(1인 가구 증가 등), 온라인 연결의 증가 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외출이 자제되고 사람 간의 교류가 최소화됨에 따라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해지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외로움,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 고통을 호소하는 성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다.¹²⁾

2.2.1 외로움과 자살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살실태조사에 따르면 48.1%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로움은 나에게 자살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에 응답하였는데 이를 통해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죽음을 선택하는 결정적 이유로 작용할 만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 자살 예방

11) 이상철, 조준영(2017) 『다차원적 사회적 고립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 한국사회정책, 62p.

12) 이려정(2020) 『기업 문화 마케팅의 여가적 접근을 통한 사회해체 징후의 완화 및 해소』, 한양대학교 관광 연구소, 158p.

백서에서는 자살을 생각하게 된 주된 이유로 외로움을 꼽았는데 이는 12.4%에 달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즉, 외로움은 자살사고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한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심리적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외로움으로 인해 한 개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 문제를 경험할 수 있으며 자살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로움은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일으키고, 스트레스, 자해와 같은 부적응적 행동을 유발하며 폭식 행동, 섭식 장애, 편집 성향과 같은 정신장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외로움은 정서·행동·성격·적응 등 삶의 전반에 걸쳐 문제를 발생시키는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¹³⁾

국내 심리학자들이 한국인의 고독 지수를 ‘상당한 고독감’에 해당하는 78점으로 평가했다. 고독감의 증가 원인으로는 개인주의 심화, 사회 계층간 대립 심화, 경제 불황, 온라인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거대한 정보기술은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타인과 소통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고립과 관계단절을 경험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 고독한 감정이 우울증, 자살, 고독사, 혐오범죄 등으로 발현된다고 강조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독감은 다양한 정신적, 사회적인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고독감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정신적, 사회적 문제와 어느 정도 관계되는가’라는 물음에 83점으로 ‘아주 관계 있다’는 답변이 그 방증이다. 무한 경쟁과 기술 발전으로 급격히 감소한 대인관계의 상호작용 때문에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게 발생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람들을 더욱 ‘고립’시키고, 결국은 고립된 상황이 고독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고독감은 인간 실존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지만, 인간에게 우울 혹은 불안과 같은 정서를 증가시키는 부정적 정서이기도 하다. 이를 인간이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정신적,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 특히 자신의 능력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갖게 되며 동시에 수면장애, 약물복용, 자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2003년부터 2015년까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자살률 증가의 요인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13) 조재숙(2021) 『외로움에 관한 최근 연구 동향 분석』,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3p.

유대감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자살을 하려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대표적 형태가 좌절된 소속감이며, 이 소속감이 좌절되었을 때 부정적 정서와 심리적 고통을 경험함으로써 결국 자살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좌절된 소속감이란, 가족 구성원, 친구들,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더 이상 의미 있는 존재로 인정되지 못하거나, 또는 더 이상 자신이 필요한 존재가 아님을 느낄 때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관계의 단절과 고립, 그리고 외로움이 자살 유발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⁴⁾

2.2.2 외로움과 고독사

최근 우리나라는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결핍된 채 홀로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가족과의 관계 단절, 사회적 관계 단절과 결핍이 고독사의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 되고 있다. 이것의 유발요인으로 이혼, 사별, 경제적 문제, 제한된 인간관계, 지역사회 참여 부족, 장애 및 건강 문제 등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더 문제 되는 부분은 유발요인들이 사회적 고립의 원인이 됨으로써 더 악화 된 건강과 삶의 질을 경험하게 하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해서 고독사 유발요인들과 사회적 고립 악순환의 발생이다. 따라서 오늘날 고독사는 더 이상 독거 노인층의 문제만이 아니다. 독립생활을 위해 원룸이나 고시텔에서 생활하다 경험하는 취업난 문제, 생활고의 문제, 경제적 문제, 사회적 체념의 문제이다. 청년층의 고독사 역시 과도한 경쟁과 고용 불안이나 관계적 박탈감에 의한 관계 단절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견해대로라면 고독사는 이제 ‘홀로 거주하다 사망한 후 발견’된 독거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청년층 1인 가구 형태에서 자살로 이어지는 사례도 고독사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¹⁵⁾

지난 10여 년간 기사화된 고독사 사건 총 170건에 대해 일반적 보도 현황을 파악해 보자면 중년층의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2017년 가장 보도 건수

14) 이은영(2018) 『외로움과 관계단절로부터 야기되는 자살은 고독사로 지정될 수 있는가?: 고독사의 개념과 대상에 관한 새로운 정립을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 연구원, 72-73p.

15) 이은영(2018) 『외로움과 관계단절로부터 야기되는 자살은 고독사로 지정될 수 있는가?: 고독사의 개념과 대상에 관한 새로운 정립을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 연구원, 84-90p.

가 많았다. 이후 지속해서 고독사 보도 건수가 증가하였고 서울과 부산의 고독사 보도 건수가 가장 많았다. 고독사 사례의 전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겨울에 가장 많은 사례가 보도되었고 대부분 거주지에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독사 발견 시간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3일 이내에서 6개월 이상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발견 계기는 사례의 절반 이상이 심한 악취 및 위생의 문제로 이웃이 신고 또는 방문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령대별 고독사 사례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노년층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의 비중이 높은 반면 청년층은 성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고독사 발견 계기는 노년층은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아 이웃이 신고 또는 발견이, 청년층은 밀린 월세 및 공과금을 받거나 강제 퇴거를 위해 방문했다가 발견한 경우가 높았다. 이는 청년층이 외부 관계 단절이 더 심각함을 의미할 수 있다. 고독사한 사례의 경제 활동 상태는 모든 연령층에서 생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지원 비중은 낮았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의 고독사 위험을 생각할 수 있다. 건강 측면은 노년층일수록 건강 문제 비중이 컸으며, 청년층의 경우 신체뿐 아니라 정신건강 문제의 비중이 다른 연령층의 고독사 사례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독사한 노년층과 중년층에 비해 청년층의 사회적 관계 단절 상태가 더욱 심각한 것이 특징적이었다.¹⁶⁾

2.3 1인 가구의 증가

도시화, 성평등 인식 확대,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 등으로 인해 1인 가구는 가장 전형적인 가구 유형이 되었다. 한국 사회 가족 영역의 축소와 함께, 사회 전반에서 진행 중인 시장주의의 팽배로 인해 공동체적 관계가 상품 관계로 대체되고, 시장이 가족의 기능과 영역을 압도하고 있으며, 사회 통합에 있어 제3의 주체인 국가의 역할이 한층 폭넓게 요구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가족과 시장 간 제도적 불균형이 심화 되는 가운데, 근대적 사회 질서의 보편적 담지자인 국가가 개인과 공공의 복리에

16) 이수비, 최윤주, 신예림, 전예빈(2022), 『한국의 고독사에 대한 연구: 2012년~2022년 신문기사의 내용분석』,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72-273p.

대한 기능을 확대하고 개인이 사회와 연계되는 또 하나의 통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져야만 하는 시점이 도래한 셈이다. 이미 세계적으로 1인 가구의 비중은 주목할 만큼 높아져 100가구 가운데 12가구(11.8%)가 1인 가구로 추정된다. 이 비율은 북유럽 국가에서 특히 높다. 노르웨이는 전체 가구의 38.5%, 독일 37.5%, 프랑스와 벨기에는 33%가 1인 가구의 형태를 이루고 있고, 유럽 도시들의 경우 그 비율은 약 40%에 달한다. 아시아 지역은 그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일본의 예를 보면 장기적 경기 불황에 따른 비자발적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대도시의 1인 가구 비율이 45%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중국에서도 최근 1인 가구의 증가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2008년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싱글 경제의 형성’이 핵심 주제어로 다루어진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한국 사회 역시 이러한 흐름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변화가 시공간을 아울러 극히 압축적으로 이루어져 온 우리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듯, 제도적 가족으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다양한 탈가족화, 개인화의 증후 또한 매우 집약된 경로를 보여준다. 2010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990년 9%에 불과하던 1인 가구 비율은 20년 사이에 두 배 이상 늘어나 전체 가구의 23.9% 수준까지 급상승했다. 1인 가구의 수는 이미 400만 가구를 넘어섰고, 이는 2005년과 비교해 3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통계청의 추정치에 따르면 2012년에 이미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에서 가장 지배적인 형태가 되었다. 실상 1인 가구의 증식을 가족 해체의 표상으로 봐야 할지 사적 영역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다양한 형태의 삶이 증가해가는 의미 있는 현상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가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기존의 사회 통합 가치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 제기와 재검토라는 과제를 우리 사회에 던져주고 있음은 자명하다. 특히 가족을 위시해 작동해온 핵심적인 사회적 관계망이나 안전망, 정서적, 도구적 지지 자원의 축소는 개인의 사회적 고립과 관계의 단절을 초래하고 조화로운 상생과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족이 담당해온 다수의 기능이 이미 대부분 시장으로 이전되고 친밀한 관계 역시 시장에서의 교환적 관계로 인해 상당 부분 잠식

당하고 있음에 비해, 이러한 불균형을 상쇄시켜줄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 노력은 아직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발적인 1인 가구는 그 삶이 다양한 선택의 하나이자 스스로의 자아를 성찰적으로 구성해 가는 과정으로 인정되어야 하겠지만 이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고, 특히 비자발적 1인 가구는 대안적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립과 단절의 차원에서 1인 가구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들에 대한 국가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다. 1인 가구의 문제가 상호 연결되지만 상이한 현실들로 엮여 있는 까닭이다. 한국의 1인 가구는 청년층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그 구성이 매우 다양하며 내부의 경제적 양극화나 이질성도 매우 큰 편이다.¹⁷⁾

혼자 사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시대로 변했다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적인 삶을 선택하거나, 혹은 비자발적으로 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을 의미한다.

1인 가구는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크게 두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경제적 안정 하에 독립생활을 선호하는 자발적 1인가구이며, 다른 하나는 취업과 경제적 문제, 가정 문제, 사회적 시선 및 분위기 등의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비자발적 1인 가구이다.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 중 상당수는 스스로 독립적 삶을 선택한 자발적인 유형보다는 어쩔 수 없는 외부 조건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1인 가구화 된 유형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¹⁸⁾

다인 가구와 비교했을 때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공동체와의 연결이 약해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및 외로움 등이 일상생활에서 해소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해소하기 어려운 심리적·정서적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주관적 외로움의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이러한 감정이 우울감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¹⁹⁾

17) 이명진, 최유정, 이상수(2014) 『1인 가구의 현황과 사회적 함의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민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230-233p.

18) 김영주, 박인경(2020), 『청년 1인 가구의 주거환경과 우울감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243-244p.

사회적 관계 요인이 우울감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1인 가구의 증가와 그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파생 문화들은 사회적 교류의 단절시켜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끼게 한다.

2.4 1인 소비문화

우리 사회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협력의 관계를 형성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현상 중 하나는 1인 가구의 증가다.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M세대, 신디스족, FIT족 등의 관련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다. 지출 면에서는 솔로 이코노미 라는 용어가 생겨날 만큼 1인 가구는 새로운 소비자로 이목을 받고 있다. 솔로 이코노미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형성된 소비 시장으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²⁰⁾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1인 소비문화가 사회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가운데 혼밥문화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4.1 혼밥 문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함께 식사하며 관계를 맺는 집단적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1인 가구의 증가나 인구의 팽배 등의 원인으로 혼자 밥을 먹는 ‘혼밥’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생겨났다.

혼밥문화의 등장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은 역시 식생활의 측면이다. 반조리 식품과, 1인 메뉴 식품, 편의점 도시락 등 혼자 먹을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서비스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혼밥의 보편화와 상품화는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변화이며, 이는 식사라는 행위에 대한 인식과 가

19) 김영주, 박인경(2020), 『청년 1인 가구의 주거환경과 우울감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243-245p.

20) 이정숙, 오종열(2017), 『1인 가구 라이프스타일, 비인간관계, 개인가치관, 식사의 간편성이 혼밥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47p.

치관이 사회경제적인 환경과 함께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의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혼밥 집단이 동반 식사 집단과 비교해 우울감이 높고 삶의 질이 낮으며 주관적 건강의 만족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경우 가족 동반의 식사가 우울 증상과 자살의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동반 식사가 정신건강의 긍정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고하였다.²¹⁾

‘혼밥’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의 배경은 밥을 먹는 행위가 개인적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식욕을 충족하는 방법이지만,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욕구를 느끼고 같은 행위를 하며 사회화를 촉진 시키는 수단이 되면서 관계 형성을 위한 중요한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²²⁾

한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며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혼밥’을 비롯한 식사 패턴의 변화가 가속화되었다. 이와 동시에 우울을 호소하는 대상자도 많아지고 있어 ‘혼밥’이 지속되는 현상은 장기적으로 청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5 움니버스 형식

움니버스 형식이란, 작품의 스토리를 구성하는 하나의 형식으로 각각 독립된 줄거리들을 서로 연결해 하나의 테마로 엮어 일관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드라마나 쇼의 형식이다. 움니버스는 원래 ‘합성 버스’라는 의미에서 유래했는데 합성 버스는 하나의 버스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탑승하는 시내의 버스를 말한다. 움니버스 형식은 바로 이러한 버스 형식의 내용을 빗대어 사용하는 말로,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짧은 이야기들을 앞뒤를 고려하지 않고 이어놓은 작품의 형식을 의미한다.²³⁾

작품 「Happy Meal」에서는 독립적이고 분리되어있는 현대인의 일상을

21) 박지현, 조혜련(2020) 『미혼 성인의 혼밥 유무에 따른 비만, 우울과 삶의 질 차이에 대한 융복합 연구』, 원광대학교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102p.

22) 이선영, 허명륜(2021) 『혼밥 현황 분석을 통한 20대 청년의 우울 예방 방안 모색』, 보건과 복지, 194p.

23) 김선희(2015) 『지아장커 움니버스 영화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p.

표현하는 구성 방식으로 이 옴니버스식 구성을 선택하였고 개별적으로 구성된 장면들이 현대인의 외로움이라는 통일된 주제를 드러냄으로써 혼자라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외로움을 구성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III. 작품 개요

3.1 작품형식 및 구조

본 연구자의 작품 「Happy Meal」은 현대인의 외로움과 결국 그 외로움을 극복하고 관계를 형성해야 할 이유를 ‘혼밥’이라는 일상적 행위를 통해 표현한 작품이다. 옴니버스식 구성으로 총 4장의 장면으로 작품을 구성하였으며, 장면이 바뀔 때마다 안무의 방식과 조명과 음악의 전환 그리고 영상 미디어를 사용해 전환을 만들어냈다.

<표 3-1>로 장면의 특징을 만들었다.

표 3-1. 장면의 특징

장면	이미지	표현방법	시간
1장	관계의 갈등	듀엣 움직임을 통한 표현	6분
2장	혼밥의 이미지	솔로 움직임을 통한 표현	3분 30초
3장	고조된 관계의 갈등	트리오 움직임을 통한 표현	3분 30초
4장	반복되는 외로움	영상 미디어와 오브제 구성을 통한 표현	8분

현대인의 외로움을 밥을 먹는 다양한 형태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1장에서는 2명의 무용수가 함께 밥을 먹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신체 접촉 움직임과 질감으로 표현하였고 2장에서는 컵 오브제와 자석을 활용한 무용수의 솔로 움직임으로 장면을 표현하였다. 3장에서는 실제 오브제를 사용하여 움직이는 2명의 무용수와 오브제를 사용하는 것처럼 마임적 움직임을 구사하는 무용수 1명의 트리오 움직임으로 관계에 대한 갈등의 고조를 표현하였다. 마지

막 4장에서는 스마트폰의 영상통화를 영상 미디어로 활용하여 현대 사회의 외로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고 오브제의 이동과 재배치를 통해 외로움이 반복되고 방치되는 사회를 표현하였다.

3.2 작품의 구성요소 및 표현 매체

3.2.1 움직임의 표현 방법

「Happy Meal」에서 본 연구자가 찾아낸 움직임은 식사라는 일상적 행위를 모티브로 한 움직임이다. 테이블과 컵, 과자 봉투를 오브제로 사용하였고 음식과 컵을 입으로 가져가거나 서로 먹여주는 모습, 잔을 부딪히는 모습, 상대방 음식을 가져오거나 건네주는 모습 등에서 움직임을 채집하여 동작화 또는 신체 접촉 움직임화 하였다.

또한 오브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지만 사용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팬터마임 움직임을 사용하여 실제로 오브제를 사용하는 무용수들의 움직임과 대조되는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표 3-2. 움직임 표현 방법

움직임	이유	특징
식사 행위에서 발견된 움직임	식사 행위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움직임들을 통해 관계의 다양함을 표현하였다.	식사 행위라는 통일된 행위 안에서 개별 무용수들이 수행하는 독립적 움직임들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다양한 구조의 안무 패턴을 형성하였다.
오브제의 사용과 팬터마임	팬터마임으로 오브제를 표현함으로써 외로움의 이미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실제로 오브제를 사용하는 무용수들과 대조되게 연출하였다.

3.2.2 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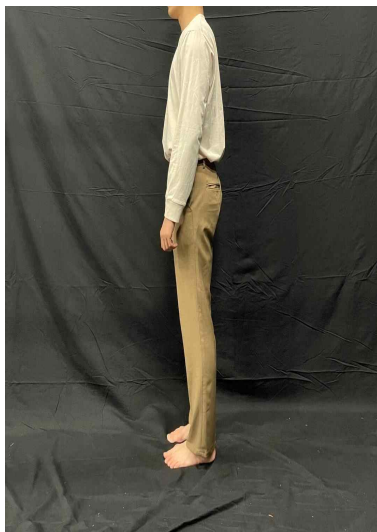
무대의상이란 살아있는 등장인물이 꾸미는 이야기(극)를 그 내용으로 구성하는 무대예술, 즉 연극, 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뮤지컬, 오페라, 음악극 등과 같은 공연을 위하여 전문적으로 계획되고 마련되는 의상이라 한다.²⁴⁾

외로움의 이미지를 의상에 투영하기 위해 원색이 아닌 채도가 낮은 베이지색, 갈색 색감의 의상을 선택하였다. 또한 가장 보편적이고 평범한 현대인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스타일의 슬렉스 하의와 기본적인 티셔츠를 선택하였다.

24) 김현숙(1995), 『무대의상 디자인의 세계』, 서울: 고려원, 25p.



<그림 3-1> 의상 (우측면)



<그림 3-2> 의상 (좌측면)



<그림 3-3> 의상 (후면)



<그림 3-4> 의상 (정면)

3.2.3 조명과 음악

무용 작품에 있어서 음악은 장면마다의 분위기를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작품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무용수의 움직임과

음악이 시너지를 분출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주제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작품에 있어서 음악은 전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하며 움직임의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무용은 음악적 리듬의 신체적 표현이다.”²⁵⁾

본 작품에서 조명은 전체적으로 단칸방의 형광등 같은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무음과 빠른 피아노 연주곡을 대조적으로 사용하여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청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1-1장에서 무용수들이 각자의 의자에 앉은 상태로 동작을 수행할 때는 테이블 위에서의 무용수 움직임에 집중시키기 위해 테이블 오브제가 설치된 영역을 주로 비추는 탑 조명과 백라이트를 사용하였고 형광등을 연상시키는 화이트 색감의 조명으로 차가운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1-1장에서는 무음 상태에서 장면을 진행하였고 무용수들이 동작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소음을 그대로 노출 시켜 적막함에 대한 표현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1-2장에서 무용수 두 명이 한 의자에 겹쳐 앉아 움직임을 수행할 때는 따뜻한 색감의 탑 조명을 사용하였고 대조적으로 빠르고 긴장감 있는 Albeniz의 피아노 연주곡 Asturias를 사용하여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표현하였다.

2장에서는 1-1장에서의와 마찬가지로 테이블 영역에 한정된 화이트 색감의 탑 조명과 백라이트를 사용하여 테이블 위에서의 무용수 움직임에 집중되는 조명을 연출하였다. 2장에서는 무용수가 설치해 놓은 핸드폰에서 나오는 잡음을 음악적 요소로 활용하였고 이 또한 외로움의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장치로써 사용하였다.

3장에서는 Paganini/Liszt의 피아노 연주곡 La Campanella에 맞춰 무용수 3명이 움직임을 수행하였고 따뜻한 느낌의 탑 조명으로 시작하여 무용수들의 움직임과 동선이 확장되고 질감이 변화됨에 따라 하수 사이드 풋라이트로 전환되었다.

4장에서는 영상 미디어의 빛과 무용수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탑 조명을 활용하여 고립되고 분리되어있는 인물들의 장면을 연출하였다. 밥을 먹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음악적 요소로 활용하여 관계의 단절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25) 김명신(1995), 『무용에서의 움직임과 음악의 요소가 작품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5p.

3.2.5 영상

무용 예술이 발전한 긴 세월 동안 무용 극장 예술 자체의 변혁이 무용 영상의 문을 열었다. 피나 바우쉬(Pina Bausch)의 <tanztheater>는 초기 독일 선봉 연극운동의 영향으로 무용 극장 변혁(變革)의 서막을 열었고, 무용의 진실과 무대의 내면적 묘사를 강조하여 극장이 단지 무용이 펼쳐지는 장소가 아니라 작품 내면을 파헤치고 인물의 내면을 파헤치는 환경 구현을 강조함으로써 표현주의적인 색채를 띠었다. 1960년대 후반 포스트모던 댄스 붐을 일으키면서 극장 예술가와 엔지니어의 합작이 시작됐다. 1966년 로버트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와 빌리(Billy)가 조직한 9박9일은 포스트모던 댄스 흐름의 상징이다. 이 활동에는 많은 무용 연출가, 음악가, 시각 예술가와 엔지니어들이 함께 하였다. 이 성대한 모임에서 뉴미디어 기술은 무용 창작에 존재하는 기술상의 난제를 해결하였고, 무대의 장치, 무용, 불빛, 음악에서 미디어 테크놀로지가 뒷받침되면서 독자적인 예술을 담은 무용 영상이 양산되었다. 그것들은 무대 표현을 위주로 신체 언어와 영상 언어의 의사소통방식을 재구축하기 위해 투영기술을 많이 활용하였다. 무용 영상의 미디어 테크놀로지가 무대를 단일에서 다원으로 변화시키고, 무용 영상도 보조적인 도구에서 무대화를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가 되게 되었다.²⁶⁾

「Happy Meal」의 4장에서는 무용수가 햄버거를 먹는 영상을 테이블에 투영하여 사용하였다. 오브제의 위치와 각도 변화를 통해 영상의 크기 변화와 왜곡을 발생시켰고 이러한 구성과 연출을 통해 현대인들이 외로움의 대체 공간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인터넷 공간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26) 장몽니(2021),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무용과 영상의 융합과 구축근에 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30-31p.

IV. 작품 분석

안무	정재우
출연	정재우, 김효경, 김인애
음악	1장 : Albeniz 피아노 연주곡 Asturias 3장 : Paganini/Liszt 피아노 연주곡 La Campanella
영상	미디어 영상 (자체제작)
작품시간	약 20분

1. 작품의도

생활 환경과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혼자 지내는 삶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에게서 발견되는 정서적 외로움과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생존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2. 작품내용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우리는 사회적 관계를 원동력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이러한 관계 속에서 소외되거나 그로 인해 고통받았던 경험 때문에 관계 자체를 회피하고 혼자만의 삶을 택하기도 한다. 혼자라는 것은 언뜻 완벽한 자유로움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다.

4.1 1장 : 관계의 갈등

4.1.1 장면 의도

1장에서는 식사라는 일상적 행위에서 채집한 움직임들을 듀엣 안무로 표현하여 타인과의 갈등이라는 소주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4.1.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1장에서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두 명의 무용수가 오브제를 사용해 움직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 움직임으로 표현하였다. 1-1장에서는 무용수들이 각자의 자리에 있는 오브제를 사용해 움직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을 통해 관계의 갈등을 표현하고자 하였고, 1-2장에서는 두 명의 무용수가 같은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로 움직임을 진행하여 신체 접촉과 움직이는 데 있어 제약이 걸리는 상황을 강조해 관계의 갈등 고조를 표현하였다.



<그림 4-1>

각자의 자리에서의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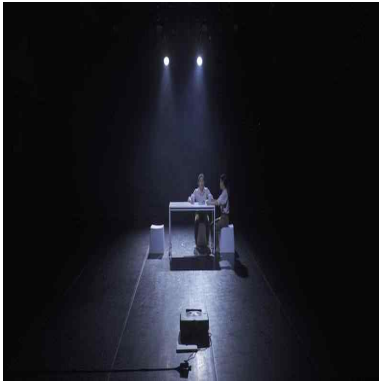
<그림 4-2>

같은 의자에서 행해지는 움직임

4.1.3 조명과 음악

테이블 위에서 이루어지는 무용수들의 움직임의 강조하기 위해 탑 조명과 백라이트를 사용하였다.

1-1장에서는 관계의 갈등에서 연상되는 차가운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무음과 화이트 계열의 조명을 사용하였고 1-2장에서는 갈등의 고조를 표현하기 위해 Albeniz의 피아노 연주곡 Asturias에 맞춰 무용수들이 빠른 신체 접촉 움직임을 수행하였다. 갈등의 고조를 표현하기 위해 1-1장에서 사용되었던 조명보다 작은 탑 조명을 사용하여 빠르게 진행되는 작고 세밀한 무용수의 동작을 강조하고자 했다.



<그림 4-3>
1-1장의 조명



<그림 4-4>
1-2장의 조명

4.2 2장 : 혼밥의 이미지

4.2.1 장면 의도

현대인들의 단절과 고립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혼밥의 이미지를 활용한 움직임을 통해 현대 사회의 관계의 단절과 외로움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4.2.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자석과 컵 오브제를 활용한 솔로 움직임을 통해 관계가 단절된 현대인들의 외로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테이블 밑 자석과 연결된 컵을 움직여 컵을 쥐고 있는 무용수의 의도와는 다르게 움직이는 상황을 연출하고 이러한 장면의 전개를 통해 혼밥에서 발견되는 외로움의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림 4-5>

혼밥의 이미지를 표현한 움직임 컨셉

4.2.3 조명과 음악

1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테이블 위 무용수의 움직임을 강조하기 위해 화이트 계열의 작은 탐 조명을 사용하였고 혼밥이라는 행위에서 발견되는 공허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무음 상태에서 흘러나오는 핸드폰 소음을 음악적 요소로 사용하였다.



<그림 4-6> 2장의 조명

4.3 3장: 고조된 관계의 갈등

4.3.1 장면 의도

3장에서는 빠르고 복잡한 트리오 안무 구성을 통해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이미지를 극단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타인과의 갈등에서 발생하는 외로움과 혼란스러움, 공허함, 무기력감 등을 움직임의 질감과 조명을 통해 표현하였다.

4.3.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오브제를 실제로 사용하는 무용수와 오브제가 없지만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무용수의 움직임을 대조시켜 관계의 혼란스러움을 강조하였고 슬로우모션 질감의 움직임을 통해 관계의 갈등 속에서 느껴지는 무기력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림 4-7>
오브제를 활용한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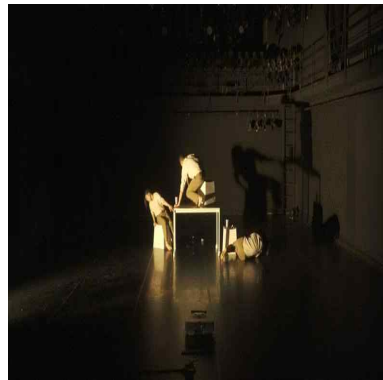
<그림 4-8>
슬로우모션 질감의 움직임

4.3.3 조명과 음악

관계의 복잡성과 긴장감을 청각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Paganini/Liszt의 피아노 연주곡 La Campanella를 사용하였고 1장, 2-1장과 마찬가지로 테이블 위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강조하기 위해 앰버 톤의 탑 조명을 사용하였다. 2-2장에서 슬로우모션 질감의 움직임으로 전환될 때 질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하수 스포트라이트를 사용하여 움직임의 질감과 무기력감에 대한 표현을 강조하였다.



<그림 4-9>
3-1장의 조명



<그림 4-10>
3-2장의 조명

4.4 4장: 반복되는 외로움

4.4.1 장면 의도

오브제를 활용한 스마트폰 영상의 사용과 반복해서 쓰러지는 무용수의 움직임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반복되고 방치되는 외로움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4.4.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스마트폰의 영상통화를 테이블 오브제에 송출하여 인터넷 공간에 갇혀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하였고 무기력하게 쓰러지는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반복하여 끊임없이 반복되는 현대인의 외로움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림 4-11>

영상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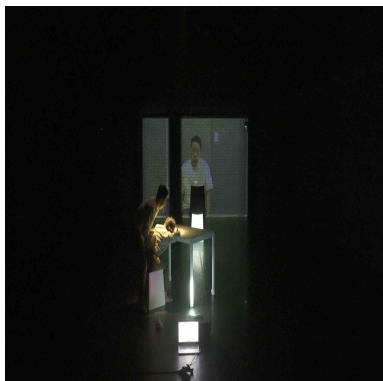
<그림 4-12>

반복적으로 쓰러지는 움직임

4.4.3 조명과 음악

4장은 패스트푸드를 먹는 영상 속 무용수의 소리를 음악적 요소로 사용하여 외로움에서 드러나는 적막함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고자 하였고 테이블이 위치되어 있는 공간에만 투영되는 영상과 무용수의 신체 크기에 딱 맞는 작

은 탐 조명만을 사용하여 전반적으로 고립되고 답답한 장면을 연출하고자 하였다.



<그림 4-13> 4장의 영상



<그림 4-14> 4장의 조명

V. 결 론

본 논문은 현대인의 외로움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이 외로움을 주제로 제작한 작품 「Happy Meal」 대한 논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발견되는 관계의 단절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개인적 외로움,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개인만의 문제로 치부하여 방치하는 사회 구조를 비판적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이러한 비판적 관점을 작품에서 표현하기 위해 현대인의 일상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외로움의 형태 중 1인 가구의 확산으로부터 파생된 혼밥문화를 주 소재로 선택하여 작품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작품 제작에 앞서 외로움의 정의와 다양한 관점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되는 외로움의 유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외로움이 사회 문제로써 작동되는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외로움이 방치되고 있는 환경과 그 구조적 원인을 조사함으로써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표현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작품 「Happy Meal」에서는 현대인의 외로움에 대한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표적인 1인 소비문화인 혼밥문화를 주요 소재로 선택하였다. 혼밥이라는 행위에서 발견되는 일상적 움직임과 이미지로부터 영감을 받아 리서치를 진행하였고, 이를 재료 삼아 안무를 구성하였다.

1인용 테이블과 의자, 혼밥을 연상시키는 식기 도구를 오브제로 활용하여 장면을 구성하였고, 스마트폰 화면을 상징하는 영상매체를 무대 미술적 요소로 활용하여 현대 사회의 외로움에 대한 이미지를 직접적이고 적나라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무음에서 무용수들이 움직일 때 발생하는 소음을 음악적 요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단절된 사회의 공허함에 대한 이미지를 연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는 작품 「Happy Meal」을 통해 현대 사회 속 만연하게 방치되어있는 외로움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하고자 하였다. 작품을 통해 우리의 주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외로움과 관계의 단절, 사회적 고립 현상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문제에 관한 관심과 책임 의

식을 유발하여,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사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자 하였다. 동시에 본 작품 제작 과정을 통해 결국 외로움은 극복되어야 할 개인의 과제이지만, 사회적 관심과 제도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외로움을 표현하기 위해 주 소재로 채택했던 혼밥문화 외에도 조사연구 과정에서 발견한 혼행문화(혼자 여행하는 문화), 느슨한 유대감, 1인 미디어에 대한 광적인 열풍, 사이버 공간 상에서의 소외감 등 현대 사회의 외로움을 투영하는 문화 현상들을 작품에서 모두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는다. 작품 「Happy Meal」 제작 과정을 통해 사회적 외로움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하게 되었다. 본 연구자 또한 동시대를 살아가는 작가로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 및 작품 제작 활동을 지속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은희. (2021). “현대사회 동향이 청소년의 고립, 외로움, 우울 및 뇌에 미치는 영향”. 대구 사이버대학교.
- 김명신. (1995). “무용에서의 움직임과 음악의 요소가 작품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 (2015). 『지아장커 옴니버스 영화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주, 곽인경. (2020), 『청년 1인 가구의 주거환경과 우울감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 김현숙. (1995). 『무대의상 디자인의 세계』. 서울: 고려원.
- 고영복. (2000). 사회학사전, 사회문화연구소.
- 서영석. (2020). 『한국인의 외로움: 개념적 정의와 측정에 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일반.
- 우추진. (2021). “실존성 불안을 은유한 하이브리드적 표현 연구”. 군산대학교.
- 유민상. (202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 정책 연구원.
- 이려정. (2020). 『기업 문화 마케팅의 여가적 접근을 통한 사회해체 징후의 완화 및 해소』, 한양대학교 관광 연구소.
- 이려정. (2020). 『지각된 외로움과 일상적 SNS 활동, 사회적 고립감 간 관계 연구』,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관광연구논총.
- 이명진, 최유정, 이상수. (2014). 『1인 가구의 현황과 사회적 함의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이상. (2019). “새로운 가족 형태로서 청년 1인 가구의 생활과 가족 가치관”. 중앙대학교.
- 이상철, 조준영. (2017). 『다차원적 사회적 고립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 한국사회정책.
- 이선영, 허명륜. (2021). 『혼밥 현황 분석을 통한 20대 청년의 우울 예방 방안 모색』, 보건과 복지 23권 제 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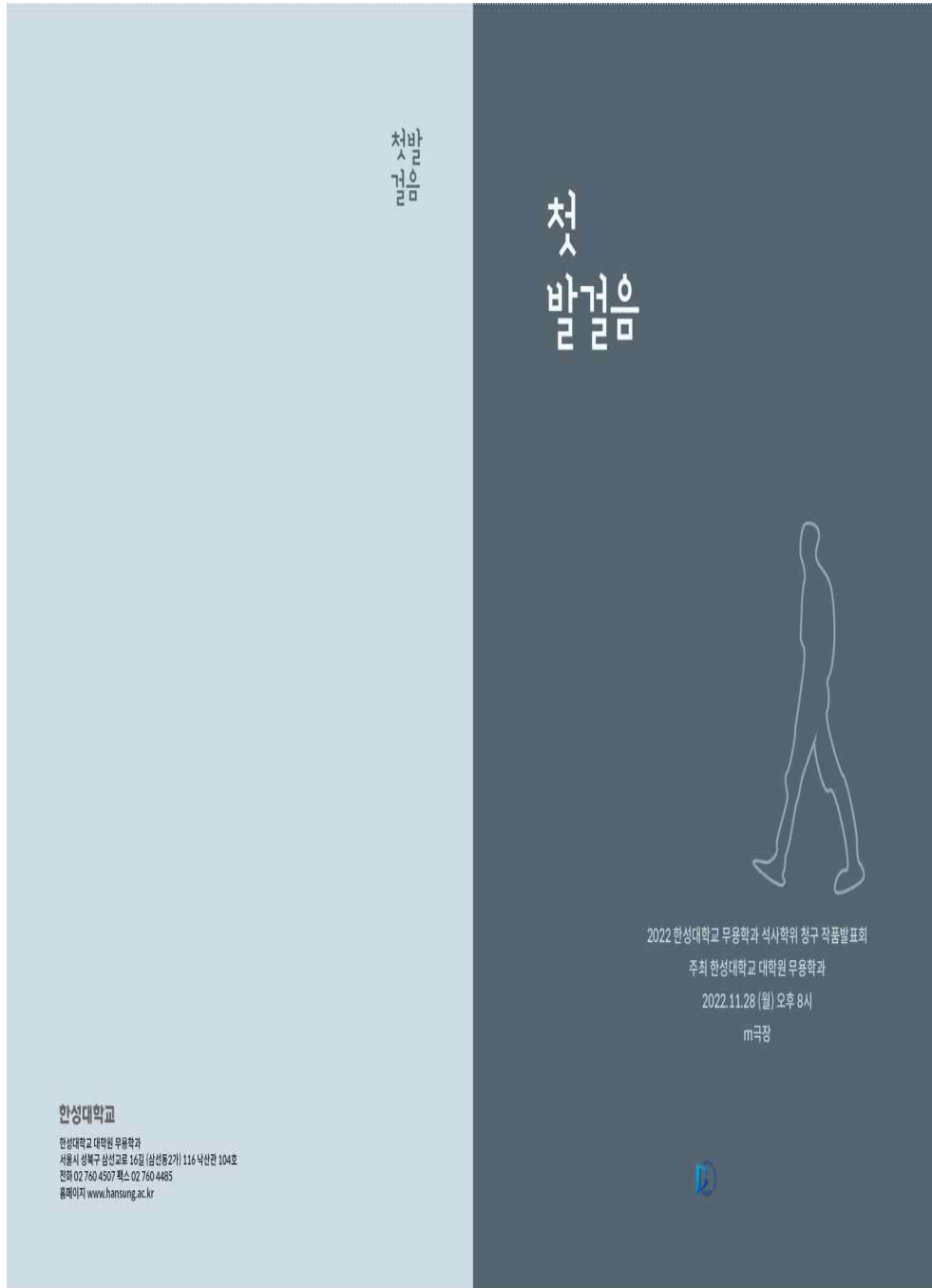
- 이성훈. (2016). 『혼자 사는 대한민국, 혼밥과 혼술을 즐기는 나홀로족』, 대구경북연구원.
- 이수비, 최윤주, 신예림, 전예빈. (2022). 『한국의 고독사에 대한 연구: 2012년~2022년 신문기사의 내용분석』,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 이승희. (2015). “현대 사회의 ‘중독’현상에서 나타나는 공허 및 인간소외 심리에 대한 시각 표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 이은영. (2018). 『외로움과 관계단절로부터 야기되는 자살은 고독사로 지정될 수 있는가?: 고독사의 개념과 대상에 관한 새로운 정립을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 연구원,
- 이정숙, 오종열. (2017). 『1인 가구 라이프스타일, 비인간관계, 개인가치관, 식사의 간편성이 혼밥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이주연. (2021). 『남녀 중년 성인의 권태 성향 및 외로움과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관계에서 소외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 효과』,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선. (2013). “총체 정보 예술로서의 무용에 관한 고찰-윌리엄 포사이드를 중심으로”. 무용 역사 기록학회.
- 장몽니. (2021).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무용과 영상의 융합과 구축극에 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재숙. (2021). 『외로움에 관한 최근 연구 동향 분석』,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Lars Svendsen. (2019). 『외로움의 철학』, 이세진 (역), 청미.
- 한창수. (2021). 『COVID-19 시대의 울분과 외로움 관리를 위한 연결성의 중요성』,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부 록

공연 프로그램 요약

작품명	Happy Meal
일 시	2020년11월 28일 월요일 20시
장 소	M극장
안무자	정재우
출연진	정재우, 김효경, 김인애
의상디자인	정재우
무대감독	.
조명감독	주 영 석
영상감독	김효경

팜플렛



Happy Meal 안무 정재우

기획 의도

팬데믹을 겪으며 의도치 않게
사회와 단절된 생활에 익숙해진
현대인의 모습과 최근 만연해진
1인 가구와 이러한 생활
환경에서 발견되는 현대인의
정서적 외로움을 식생활 형태의
변화에서 파생된 일상적
움직임들로 표현하고자 한다.

작품 내용

유독 인간에게 발달하여 있는
'외로움'이란 감정은 개인적인
영역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영역이다. '외로움'이란 감정은
때론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찾아와 극단적인 결과를
선택하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에 저항하듯 스스로 고독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또한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거나 사회적
상황에 의해 형성된 자발을
빙자한 비자발적 형태일 것이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인간이
외로움에 아주 취약한 존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백해무익해
보이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 한낱 질병
혹은 사회적 문제에 불과한
것일까? 이 작품은 이러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우리는 사회적 관계를
원동력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또, 이러한 관계 속에서
소외되거나 그로 인해
고통받았던 경험 때문에 관계
자체를 회피하고 혼자만의 삶을
택하기도 한다. 혼자라는 것은
언뜻 완벽한 자유로움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다. 만약 외로움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는다면 인간은
다시 누군가와 관계를 형성하려
할까? 사회를 이루지 않은
개개인의 인간은 살아갈 수
있을까?
'외로움'은 인간이 타인과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를 구성해야 할 이유이자
스스로를 고립시킬 수 없게
만드는 최후의 장치가 아닐까
한다. 여기에 외로움이라는 것의
존재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정재우

출연



김인에



김효정

ABSTRACT

Analysis of Dance Work 「Happy Meal」

Jung, Jae-Woo

Major in Dance Performance

Dept. of Danc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dance work is a work about loneliness found in modern people who have become accustomed to living alone due to changes in their living environment and values. It is a study and work analysis on the conclusion that raising the problem of individual loneliness and forming social relationships, which are widely neglected in modern society, are essential factors for survival.

Loneliness, which is developed in humans, is both a personal and a social area. Modern society is creating an environment vulnerable to loneliness due to changes in the lifestyle and values of modern people. I would like to talk about the loneliness of modern people suffering from alienation and depression due to involuntary isolation rather than voluntary isolation.

Humans live in constant relationships with others for survival. We live as a driving force in social relationships, but we avoid the relationship itself and choose to live alone because of the experience of being alienated or suffering from it. Being alone may seem like a perfect freedom, but humans are social beings who can never live alone. If you don't feel lonely, humans won't feel the need to form a relationship with someone again. This soon leads to a weakening of human viability.

The newly formed cultural aspects of modern society, single-person households, eating alone, and smartphone overreliance are a means of replacing loneliness and a product of modern people adapted to the disconnection of relationships. The appearance of modern people adapted to disconnected society and loneliness is taken as movements collected from these daily activities.

In particular, he devoted his heart and soul to the recent flourishing honbab culture and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bserved here, and used smartphones and screens transmitted to smartphones as videos. Through this, the image of loneliness found in modern people's disconnected lives and cultures was maximized.

This work, consisting of a total of three chapters, expressed and analyzed the work by organizing creative movements that combine various elements such as solo, duet, trio, and media video in omnibus format.

What we discovered through the course of this study is that the formation of social relationships is essential for humans and that the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that replace these relationships in the present era are incomplete.

【Key words】 Loneliness, relationship, society, eating alone, single-person household, smartphone, omnibus format